

## 영아어머니의 자녀돌봄의 부담감과 지지, 교육 및 상담요구에 관한 조사연구

한 경 자\*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영아기는 타 발달단계에 비하여 의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신체생리, 사회심리적으로 발달속도가 전생애를 통해 가장 빠른 시기이고 또 이 시기의 건강은 성인기 개인의 건강을 좌우하기 때문에 영아의 건강 유지 및 증진에 대한 포괄적인 건강관리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영아어머니의 자녀돌보기 부담감, 지지, 교육 및 상담요구에 대한 기초조사는 필수적이다.

영아라 함은 통상 1세 미만의 아동을 지칭하는 말로서 보사부 보건사회통계연보에서 영아를 포함하는 우리나라 0-4세아의 인구구성비는 '94년에 7.4%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구규모에 비해 이 시기 아동의 진료건수나 소요 의료비는 5세 이상의 인구보다 훨씬 더 높고 그중에서도 상당 부분 지나친 병의원 방문의 의료이용을 하고 있음을 박인화 외(1993), 그리고 송건용 외(1993)가 지적하고 있다. 영유아의 의료이용수준이 의료요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높아 의료의 남용소지가 큰 결정요인을 송건용 외(1991)는 어머니의 질병예방 관리능력부족과 건강관리를 병의원에 의존하는 어머니의 태도라고 하였다. 반면 박현애(1994)는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부모의 신념과 가치가 자녀의 의료이용정

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영유아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는 부모의 자녀건강관리에 대한 능력을 함양하고 나아가 건강관리체계에 대한 영유아 부모의 의존도와 신념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정선 외(1992)는 우리나라 모자보건 사업은 건강지도와 사고방지등, 예방적 차원의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현재까지 영유아의 건강증진사업은 보건소 등의 공공보건조직에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도시 보건소의 영유아 건강관리 업무는 영유아 관리 대상자 파악과 홍보, 건강검진, 가장 실적이 좋다고 평가받고 있는 예방접종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면서도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보건교육의 분야로 나뉘어 있는데 영유아 관리상 민간의료기관과 보건소간의 연계체계가 없으며 대상지역내의 대상자 파악이 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유아 건강관리의 지속성이 없고 시행되고 있는 보건사업 내용이 현재 우리나라 질병 유병율이나 심각성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역 보건정보체계 개발사업단(1994)에서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관리체계의 한 요소로서 치료, 지원, 예방적 측면을 모두 포괄하며 그 특성상 의료 및 사회적인 서비스들 조화시키고 대상자의 자기간호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3차진료기관을 중심으로 실시하게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된 우리나라의 가정간호사업에 대하여 5개병원의 2년간 현황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는 9세 미만의 어린이 대상자가 3.8%에 그치고 있다(황, 1996). 이에 비해 보건교육과 건강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시작되어 발전해온 영국의 방문간호사업은 타 연령층보다 5세미만의 방문요구비율이 높았던 가정간호사 활동중 아동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보건교육과 지도활동이 대부분을 차지했음을 보고한 바 있다(1982).

한경자 외(1994)는 일개 군단위 지역의 가정간호요구 조사에서 0세에서 6세사이 영유아 건강관리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은 자녀의 건강관리에 대한 부모교육과 지지라고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영유아가 발달해 감에 따라 부모교육 및 상담에 대한 요구가 감소됨을 보이지 않아 영유아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보장하기 위하여 발달단계에 따라 그 주제를 달리하여 계속적인 부모교육 및 상담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었다(한경자 외, 1995). Denehy(1990)는 영유아 건강관리에 포함되어야 할 구조적 요소로서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이해와 준비, 부모역할기술의 개발, 자녀의 일상생활 문제에 따르는 대처방법과 양육기술에 대한 사전 건강지도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권미경(1995)은 일개 도시 보건소를 내원한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양육을 위한 도움, 교육, 상담의 필요성을 조사한 연구에서 그 필요성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특히 예방접종, 사고예방에 이어 자녀와의 관계형성에 도움이 요구된다는 것을 밝혔다.

부모는 자녀에게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환경이다. 건강을 그들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부모의 활동은 자녀 양육의 중요한 기능으로서 부모의 역할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러한 부모역할개발을 위한 어떠한 시도이든 그것은 영유아 건강관리의 기초적 자원이 될 것이다. Rheingold(1972)는 우리 사회의 궁극적 목표는 미래 세대를 기르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부모만이 지기엔 너무 큰 부담이기 때문에 사회가 그 책임을 나누어 져야 하며 그 책임을 공유하여 부모를 도와 줄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현대의 가족형태는 극도로 핵가족화되어 가고 젊은 부부들은 자녀양육에 대한 정식 교육이나 관찰을 통한 학습의 기회가 부족되거나 거의 없어 출산후 흔히 자녀 양육 문제로 당황하고 혼란에 빠진다. Bigner(1985)는 부모역할은 학습되어지는 것이라 하였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홍강의

(1995)는 양육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육아와 부모역할에 대한 체계적 교육, 전문가 양성, 직장모를 위한 양육 시설확대, 아동의 문제 조기발견 및 적절한 조치를 위한 전문가 역할재정립을 제안한 바 있다.

그리하여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관심과 책임이 있는 전문가들은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부모역할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은 빠를수록 좋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특히 정규적인 사회학습상황에 들어가기 전의 영아에게 출생후 첫 일년간 제공되는 돌봄의 특성에 따라 전생애에 있어 인지기능을 포함하는 영아의 건강을 예측할 수 있고 영아어머니는 그들 자녀에게 조기경험의 전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Bornstein, 1984) 영아어머니의 자녀돌보기에 대한 부담감이나 지지요구에 대하여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영아어머니의 그들 자녀돌보기를 위한 모성역할에 대한 부담감과 그들 자녀의 건강관리를 위한 요구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파악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와 관련된 최근의 연구들은 주로 만성질환아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조사(Davis 외, 1991; Mrazek 외, 1991a, 1996b; James 외, 1994; Dahlquist 외, 1994), 출산후 산모에 대한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산모교육과 관련된 연구(조결자 외, 1996)와 초산모의 모성역할에 대한 태도(Ruth, 1986) 등이 있으나 특히 영아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제로 자녀돌보기 부담감 정도와 자녀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지지 및 교육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한경자 외(1994), 권미경(1995)의 군단위 혹은 일개 지방도시에서 시도한 연구외에는 찾기 힘든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영아어머니가 그들 자녀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자녀돌보기를 위하여 실제로 가정간호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 파악한 연구도 거의 없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생의 초기에 있는 자녀의 건강증진에 대한 구체적인 부모역할교육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내용설정과 접근 방안모색에 중요하며 또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기준치 마련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2. 연구 목적

따라서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영아어머니의 자녀돌보기에 대한 부담감 정도를 파악한다.
- 2) 영아어머니의 자녀돌보기에 대한 지지요구 정도를 확인한다.
- 3) 영아어머니의 자녀돌보기에 대한 교육 및 상담요구 정도를 확인한다.

### 3. 용어의 정의

#### 자녀돌보기

자녀와의 상호작용, 환경조성, 훈육의 자녀발달을 촉진시키는 사회적 형태의 돌보기 활동과 자녀의 신체적 요구 충족을 위한 구체적인 양육관행의 부모역할을 말한다.

#### 자녀돌보기 부담감

자녀돌보기와 관련되어 영유아의 어머니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한 불편감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10문항 5점척도로 구성된 도구로서 최저 10점에서 최고 50점사이의 점수는 부담감의 정도를 나타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담감이 높다는 것을 말한다.

## II. 문헌 고찰

### 1. 부모역할과 자녀양육

자녀가 출생하여 2세에 이르는 영유아기는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양육단계의 부모기로서 사실상의 부모역할이 적극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다(Demick 외, 1993). Galinsky(1981)에 따르면 자녀와의 관계형성은 이 시기의 주된 임무라고 하였다. Bigner(1985)는 부모 자녀관계 형성과 관련되어 따뜻함(warmth)을 제공하는 정서적 차원과 배고픔의 충족, 체온유지 및 은신처 제공 등의 자녀의 생존과 보호를 위한 도구적 차원의 두 가지 차원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역할을 구분하였다. Gordon(1972)은 효율적인 부모역할은 자녀의 신체, 정신적 건강에 대한 책임과 생산적이고 협동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가장 초보적인 사회적 단위를 부모로 본 Harman & Brim(1980) 역시 부모역할에는 자녀의 생물학적 요구와 주어진 사회 혹은 문화권안에서 통합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자녀를 이끌어갈 양육의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일찍이 사회학자인 Clausen(1968)은 자녀의 생존과 그들이 속한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에 도달할 수 있도록 영양, 수면, 배설 등의 생리적 요구충족과 문화적 규범에 부합되고 운동, 언어, 인지,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등 그들 자녀를 양육할 부모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열거 하였다. Rutter(1996)는 애착(Attachment) 개념의 임상적용에서 애착의 경계, 내적 통제 기전(internal working model), 부모역할(parenting)의 질

과 돌봄의 양상등 해결되어야 할 쟁점들과 아동의 보호 및 부모역할 사정 등의 고려점에 대한 그의 제론에서 부모역할은 자녀와의 지속적인 관계형성 만큼 경험, 훈육 그리고 직접적인 돌봄의 제공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한편 부모역할의 임상적 사정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던 Mrazek 외(1996)는 부모역할을 온정, 통제와 수용, 자녀를 위한 기본적 돌보기 및 정서 신체적 발달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기본지식, 그리고 자녀 돌보기 책임의 우선순위 결정과 관련된 소임으로 그 차원을 구분하였다.

한편 자녀양육은 생물사회학적 관점으로 볼 때 모성의 본질에 유일하게 근간을 두기 때문에 모성의 자녀양육이라고 함이 마땅하며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부모역할이 더 자연스럽다고 하였던 Rossi(1977)의 주장을 논박하면서 Wilder(1982)는 어떤 생물의 종보다도 지적이며 창의적인 인간은 자연의 노예일 필요가 없는 인간 본성의 덕으로 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부모의 양상을 학습할 능력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그러하였듯이 그도 일차적인 자녀양육자는 어머니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연구로서 Young(1986)의 연구는 78명의 초산모의 양육양상에 대하여 출산후 1개월, 6개월 그리고 1년에 가정방문하여 일년간 모성역할 및 양육태도를 조사하였는데 시간경과에 따라 모성의 역할이나 양육태도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그들자신의 어머니에 의해 양육되었던 방식이나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다양한 생활사건들이 자녀양육관행에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 하여 주었다. 특히 미혼모에 비해 결혼한 상태의 어머니들은 모성역할과 양육관행이 훨씬 긍정적임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에서 어머니의 연령은 모성역할이나 양육관행에 유의한 변수가 되지 않았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10대 사춘기어머니의 자녀돌보기 능력을 임상 및 연구의 쟁점을 이룰만큼 큰 문제로 지적하는 Porter(1990)는 문헌고찰을 통한 그의 논설에서 10대 연령의 어머니들은 그들 자녀의 신호(cue)에 민감하지 못하며, 비언어적 상호작용이 우세하고, 아동의 발달에 대한 지식부족, 부적절한 가정환경조성과 자녀에게 칭찬보다 징벌을 선호한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자녀양육은 복합적인 문제이며 시대적 요구이면서 어려운 임무이지만 아직도 알려진 것은 거의 없고 많은 추측과 가정만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17명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10대 사춘기 미혼모들의 부모역할 지각(perception)

을 조사한 Wayland & Rawlins(1997)의 연구결과는 사춘기 미혼모들은 자녀 돌보기와 양육에 대한 정보를 그들의 어머니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우는 아기 달래기, 훈육 그리고 그들 어머니 및 아기 아버지와의 갈등을 자녀 양육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모유수유와 사소한 아동기 질환에 대한 정보를 원하고 있으며 그들 자녀의 성장과 발달, 안전의 쟁점에 관해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자녀양육관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Solomon(1992)은 그의 코호트 연구 결과에서 사회문화적 조직망 혹은 사회경제적 조건이라고 밝혔다. 한편 역학적, 생활사적 견지에서 부모역할, 즉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변인들의 연결체계를 개발한 Luster & Okagaki(1992)에 의하면 부모, 자녀, 상황적 맥락의 누적효과, 진행요인(moderating variable)의 효과를 갖는 가족관계, 부모의 정신적 안녕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개요인으로서 스트레스, 그리고 상황적 맥락과 개인의 특성과 시간이 경과되어도 과거에 경험한 동일한 상황이 동일한 행동을 유발하게 한다는 다섯가지 요인들을 부모의 양육관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들었다. Lykken(1997)은 현 시대 청소년들의 사회병리적이며 비능률적인 자녀양육은 그들의 아동기 초기 이탈된 부모의 양육환경에서 기인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녀양육관행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Erickson, 1993; Porter, 1990; Solomon, 1993; Browich, 1981; Young, 1986)은 남편, 조부모, 친척 혹은 전문가 등의 지지, 교육 및 상담지도를 부모의 양육관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들고 있다.

## 2. 자녀돌보기 지지, 교육 및 상담 중재

한경자 외(1994)는 일개 군지역의 가정간호요구조사에서 대상 영유아의 안전과 위생관리, 그리고 모유수유와 관련된 영양관리, 그리고 자녀의 성장,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교육요구가 높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녀양육으로 인한 피곤함이나 부부간 갈등호소도 대상 영유아 어머니의 33.7%에서 보여 영유아모의 육아지도 및 지지의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해주었다. 반면 권미경(1995)은 일개 도시 보건소를 내원한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양육을 위한 도움, 교육, 상담의 필요성을 조사한 연구에서 예방접종과 사고예방에 이어 자녀와의 관계형성에 교육이 요구된다는 것을 밝혔다. 이에 비해 동통을 동반하는 처치중의 암환아 66명과 그들의 부모

에 대한 자녀와의 관계, 훈육 및 행동에 관해 연구한 Dahlquist 외(1994)는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자녀와의 관계에 장애양상을 나타냈으며 비효율적인 훈육양상을 보여 자녀의 연령은 부모의 행동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임을 나타내 이러한 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Rodrigue 외(1994)는 당뇨환아의 부모역할에 대한 자기효능감, 자녀행동에 대한 지각이 건강아보다 훨씬 부정적이고 그들의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도가 건강아 부모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Bigner(1985)는 부모역할은 학습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반면 Cafagna(1982)의 견해는 인간은 자신의 자연, 사회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창조할 능력이 있고 지각, 인지능력, 지능, 동기 등에 따른 일반적인 학습능력에 의해 자녀돌보기 기술도 학습된다고 주장하였다. 신(God)이 아닌 부모들은 부모되기 훈련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부적절한 양육행동에 대하여 비난을 받는다는 것을 지적한 Gordon(1972)은 새로 부모가 된 수많은 사람들은 완전히 의존적인 자녀의 신체정신적 건강을 책임지고 양육하여 생산적이고 협동적이며, 사회에 기여할수 있는 인간으로 길러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책임은 무조건 수용되어야 하고 자신의 요구는 자녀의 요구 다음으로 희생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실수는 그들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망각한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진실로 인간다울 때에 가장 효율적인 부모가 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 자녀의 요구수용 훈련에 중점을 둔 부모역할 훈련과정을 고안하였다.

영아에게 초점을 두고 출생으로부터 3세에 이르는 영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그들 자녀가 변화해 감에 따른 요구에 대한 인지 기술과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정적 혹은 양가감정에 대한 부모의 정신치료, 그리고 영유아의 발달과 그들의 돌보기 기술에 초점을 둔 부모교육을 복합시킨 부모-자녀 상호작용 모형의 중재프로그램을 조산아출생 30가족에게 적용한 Bromwich(1981)의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에 진전효과를 가져왔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IJzendoorn(1996)은 세대간 부모역할 세습환(inter-generational cycle)을 중단시키므로써 모성의 민감성과 영아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애착중재를 시행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수준을 높일수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임부와 영유아 부모를 위한 가정방문 프로그램의 이론적 근거마련을 위하여 자기효능감, 애착 그리고 인간사

회생태학의 세 개념을 프로그램내용과 임상적 방법으로 도입하여 비공식 사회적지지, 문화적 신념고려 그리고 자녀양육능력의 평가와 민감하고 반응적인 돌보기증진을 중심으로 방문간호사에 의한 포괄적인 가정방문 프로그램을 미국내 3개 지역에서 실시하였던 Olds의(1997)의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자녀돌보기 질을 높여주었을 뿐만아니라 가정방문을 통해서 가족의 실질적인 요구와 결정적인 영역에서의 자원요구 및 대상자 입장에서 문제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성과도 얻었음을 보고했다. 한편 Kitzman 외(1997)는 출산후 2년간 자녀돌보기에 대한 지속적인 가정간호 중재의 효과는 어머니의 자녀양육 능력을 15년간 지속시킨다는 것을 그의 장기간에 걸친 연구에서 밝혀주었다. 반면 Koepke(1994)는 다양한 건강관리 상황에서 팜플렛 등의 자녀양육에 관한 부모역할 자료를 진열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족을 도울 수 있는 간단한 중재방법으로서 제시하였다.

Brazelton(1995)은 자녀의 발달과 더불어 각 단계의 결정적인 시기에 부모에게 자녀돌보기에 대한 충분한 정보의 제공과 격려 및 지지를 해주어야 할 책임이 전문가들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시켰다.

###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영아 어머니의 자녀돌보기에 대한 부담감과 자녀돌보기에 대한 교육 및 지지 요구에 대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1996년 11월1일에서 30일 사이에 자녀의 예방접종을 위하여 서울시내 S대학교 어린이병원 외래를 방문하여 대기중인 22명의 영아어머니와 일개 보건소 영유아실을 방문한 41명의 영아어머니로서 총 63명의 영아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연구자가 문헌고찰을 통해 개발한 Likert식 척도로서 도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아동간호학 교수 1인과 4년 이상의 신생아를 비롯한 아동간호 실무경력이 있는 4인의 간호사와 2차례의 논의를 거쳐 작성된 도구이다. 부담감 척도는 영아의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느끼는 긍정, 부정적 경험에 대한 총 10개의 항목으로 긍정, 부정적 항목이 각각 5개씩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최저 10점에서 최고 50점사이의 점수분포를 보이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담감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내적 일관성 검사는 Cronbach  $\alpha$  .75였다.

또한 지지, 교육 및 상담 요구도는 각각 구체적인 자녀양육 행동과 관련된 내용 14항목에 대하여 지지 및 교육 및 상담의 필요성 정도를 “자주 필요하다”, “가끔 필요하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의 3점 척도로 구성되어 최저 14점에서 최고 42점사이의 점수분포를 보이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요구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내적 일관성 검사에서 cronbach  $\alpha$ 는 각각 .89와 .73을 나타냈다.

#### 3. 자료 수집

연구자는 대기실에서 예방접종을 하기 위하여 대기중인 영아어머니에게 응답에 동의를 구한 후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약 10분간이었으며 질문지 작성이 끝나면 즉각 회수하였다.

#### 4. 자료 분석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영아어머니의 자녀돌보기 부담감, 지지, 교육 및 상담요구도의 서술적 통계분석과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영아어머니의 자녀돌보기 부담감, 지지, 교육 및 상담 요구도간의 관련성에 대하여 ANOVA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자녀돌보기 부담감, 지지요구도, 교육 및 상담 요구도에 대한 상관관계를 Pearson 적률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 Ⅳ.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영아어머니의 연령별 분포는 만 21세에서 25세미만이 7명, 26세에서 30세미만이 35명, 31세이상 영아어머니는 21명으로서 평균 29.68세였다. 영아어머니의 교육정도는 고졸이하 36명, 대졸이상자가 26명이었다. 영아어머니가 직업을 가진 경우는 10명이었고 직업이 없는 경

<표 1> 대상자의 특성과 자녀돌보기 부담감, 지지요구도, 교육 및 상담요구도의 관계

특 성	부담감					지지요구도				교육 및 상담 요구도			
	실수	평균	표준편차	F	P	평균	표준편차	F	P	평균	표준편차	F	P
<b>영아어머니</b>													
<b>연령(세)</b>													
21-25	7	19.86	5.9562			29.00	7.9791			30.29	6.2374		
26-30	35	22.09	4.3411	.7930	.4572	31.06	4.8260	.4493	.6402	29.69	3.4960	.1288	.8794
<31	21	22.24	4.4035			30.67	4.8819			29.24	6.3946		
<b>교육</b>													
고졸 ↓	37	21.82	4.9572	.4826	.6196	30.79	5.8712	2.6029	.9521	28.88	4.3329	.9160	.4057
대졸 ↑	26	21.69	4.2026			30.38	4.4639			30.62	5.5359		
<b>직업</b>													
유	10	23.30	3.4976	1.1546	.2868	33.10	4.7714	2.6029	.1118	29.00	4.1899	.1796	.6732
무	53	21.62	4.6831			30.25	5.1921			29.72	5.0206		
<b>분만형태</b>													
자연분만	43	23.96	4.6317	4.0276	.0493*	31.41	5.5497	1.7167	.1953	29.83	3.9806	.1518	.6983
제왕절개	20	20.15	3.8835			29.55	4.4423			29.30	6.6102		
<b>수유형태</b>													
모유	17	21.06	4.0229	30.71	5.2053	30.29	2.9742						
분유	25	23.48	4.6558	3.4182	.0404*	31.28	4.6594	.2200	.8032	29.16	3.4723	.2631	.7969
혼합	21	20.68	4.6194			30.21	6.2055			29.74	7.5403		
<b>도움</b>													
유	21	21.71	4.6706	.0737	.7896	32.20	5.5579	7.1598	.0096**	32.38	5.9117	11.5046	.0012**
무	42	22.45	4.5495			29.01	4.6804			28.27	3.6265		
<b>영아</b>													
<b>연령(개월)</b>													
1-3 ↓	45	22.90	4.7962	.5878	.4463	30.34	5.4727	.8898	.3493	29.82	4.8860	4.8860	.2221
3-6 ↓	18	21.22	3.9787			31.72	4.5737			29.17	5.0788		
<b>성별</b>													
남아	30	21.74	4.4583	.8615	.3571	31.48	4.4531	1.0953	.2995	29.76	5.1903	.0476	.8280
여아	33	22.42	4.6639			30.09	5.8168			29.76	5.1903		
<b>출생순위</b>													
첫째	39	21.69	4.8372			31.11	5.0861			28.9	3.7752		
둘째	19	22.32	4.2824	.6878	.5069	34.49	5.1162	3.2736	.0501*	32.53	5.8345	6.9462	.0020*
셋째 ↑	5	21.60	4.0373			26.40	5.7706			25.40	3.9749		
<b>제태기간(주)</b>													
37 ↓	9	22.33	4.7697	.1308	.7193	29.5	5.1962	.7558	.3920	29.33	8.1240	.1063	.7458
38 ↑	54	21.97	4.7985			32.4	5.4014			29.95	4.1987		

\*P<.05, \*\*P<.01

우는 53명이었다. 분만형태는 자연분만이 43명이었으며 제왕절개분만이 20명이었다.

영아의 특성으로 성별분포는 남아가 30명, 여아가 33명이었고, 연령별 분포는 1개월이상 3개월미만 영아가 45명이었고 3개월이상 6개월미만 영아가 18명이었으며 영아의 평균월령은 2.34개월이었다. 출생당시 재태기간은 37주미만이 9명, 38주이상인 54명이었으며, 출생순위는 첫째가 39명, 둘째가 19명 그리고 셋째이상인 5명이었다. 수유형태로는 모유영양 17명, 분유영양 25명 그리고 혼합영양이 21명이었다. 자녀돌보기를 위하여 영아어머니가 현재 다른사람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는 21명이었고 도움을 받고 있지 않는 경우는 42명이었다. 그리고 가정간호를 원하는 영아어머니는 10명이었고 원하지 않는 경우는 53명이었다.

## 2. 자녀돌보기 부담감

자녀돌보기 부담감은 <표 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최소치 10점에서 최대치 50점의 총점에서 평균 22.06점이었다. 5점만점의 각 문항별로 보았을 때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자녀돌보기로 인해 피곤하다”(3.22)는 항목과 “자녀돌보기 지식이 없어 썰썰맨다”(2.59)는 항목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자녀돌보기 부담감 정도는 자연분만에서 22.96, 제왕절개분만에서 20.15로서 분만형태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F=4.03, P=.0493$ ), 수유형태에 따라서 모유영양의 경우 21.06, 분유영양에서는 23.48점 그리고 혼합영양에서 20.68점으로서 통계

<표 2> 자녀돌보기 부담감 정도

항 목	평 균
나의 자녀를 돌보는 일은 즐겁다.	1.48
나에게 자녀돌보기는 부담이 된다.	2.56
자녀돌보기로 인해 피곤하다.	3.22
나는 자녀돌보기에 적합하지 않다.	2.16
나의 자녀를 돌보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	1.75
자녀돌보기는 나에게 활력을 준다.	1.92
나는 자녀를 돌보는 일이 만족스럽다.	2.08
자녀돌보기 문제로 우리 부부는 다툰다.	2.05
자녀돌보기로 인해 부부간 상호이해의 폭이 넓어져서 도움이 된다.	2.25
자녀돌보기 지식이 없어서 썰썰맨다.	2.59
총 점	22.06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3.4182, P=.0404$ ). 그러나 자녀돌보기 부담감 정도는 영아어머니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유무, 영아의 성별, 출생순위, 재태기간 그리고 현재의 자녀돌보기 도움유무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 3. 자녀돌보기 지지요구도

<표 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건강관리 수행과 관련된 자녀돌보기 지지요구도는 총점 최소치 14점, 최고치 42점에서 30.69로 나타났다. 3점만점의 각 문항별로 보았을 때 지지요구도가 비교적 높은 것은 “부모-자녀 상호작용”(2.41), “예방접종”(2.40), “사고예방”(2.33)의 순이었고,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항목이 “수면장애”(1.94)였다(<표 3 참조>).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자녀돌보기 지지요구도는 출생순위에 따라 첫째인 경우 31.11점, 둘째 34.49점, 그리고 셋째이상에서 26.40점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3.2736, P=.0501$ ). 또한 자녀돌보기 지지요구도는 현재 자녀돌보기에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는 33.16, 도움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는 29.51로서 현재 자녀돌보기의 도움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7.1598, P=.0096$ ). 그러나 자녀돌보기 지지요구도는 영아어머니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유무, 분만형태, 자녀의 성별 재태기간 그리

<표 3> 자녀돌보기 지지, 교육 및 상담요구도

항 목	평균점수	
	지지요구도	교육 및 상담요구도
부모-자녀 상호작용	2.41	2.25
목욕	2.32	1.83
영양관리	2.32	2.13
예방접종	2.40	2.17
치아관리	2.25	2.13
발달촉진 환경조성	2.27	2.13
사고예방	2.33	2.22
수면장애	1.94	1.94
훈육	1.95	2.05
배변훈련	1.98	1.97
성교육	2.05	2.05
이상행동관리	2.00	2.02
응급대처	2.30	2.24
통상질병관리	2.17	2.17
총 점	30.69	29.3

고 수유형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1 참조>.

4. 자녀돌보기 교육 및 상담요구도

건강관리수행관련 자녀돌보기 교육 및 상담 요구도는 <표 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총점 최소치 14점, 최고치 42점에서 29.3으로 나타났다. 문항별 점수 3점만점의 각 문항별로 보았을 때 교육 및 상담 요구도가 비교적 높은 항목으로는 “부모-자녀 상호작용”(2.25), “응급대처”(2.24), “사고예방”(2.22)의 순이었고,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항목이 “목욕”(1.83)이었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자녀돌보기 교육 및 상담요구도는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라 그 평균점수가 첫째에서 28.9, 둘째에서 32.53, 셋째이상에서는 25.40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6.9462, P=.0020)가 있었고, 현재의 도움유무에서 그 평균점수는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 32.38, 도움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는 28.27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1.5046, P=.0012). 그러나 자녀돌보기 교육 및 상담요구도는 영유아모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유무, 분만형태, 자녀의 성별, 출생순위, 재태기간 그리고 수유형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1 참조>.

5. 자녀돌보기 부담감, 지지요구도, 교육 및 상담요구도의 상관관계

영아어머니의 자녀돌보기 부담감, 지지요구도, 교육 및 상담요구도는 지지요구도와 교육 및 상담요구도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R=.4312, P=.000). 그러나 영아어머니의 자녀돌보기 부담감은 지지요구도, 교육 및 상담요구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표 4 참조>.

<표 4> 자녀돌보기 부담감, 지지요구도, 교육 및 상담요구도간 상관관계

	부담감	지지요구도	교육 및 상담요구도
부담감			.1775 (P=.164)
지지요구도	.1635 (P=.2000)		
교육 및 상담요구도		.4312 (P=.000)	

6. 가정간호요구유무에 따른 영아어머니의 자녀돌보기 부담감, 지지요구도, 교육 및 상담요구도

가정간호요구 유무에 따른 자녀돌보기에 대한 지지요구도는 가정간호를 원하는 영아어머니의 경우 34.20, 원하지 않는 영아어머니의 경우, 27.09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11.6672, P=.0013) 가정간호요구유무에 따른 자녀돌보기의 교육 및 상담요구도는 가정간호를 원하는 영아어머니의 경우, 32.40, 원하지 않는 영아어머니의 경우 26.23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10.3565, P=.0023). 그러나 가정간호요구유무에 따른 자녀돌보기 부담감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5 참조>.

<표 5> 가정간호요구 유무와 자녀돌보기 부담감, 지지, 교육 및 상담요구

특 성	부담감					지지요구도			교육 및 상담요구도				
	실수	평균	표준편차	F	P	평균	표준편차	F	P	평균	표준편차	F	P
가정간호요구													
유	10	22.6	4.0770	.8282	.3672	34.20	3.7712	11.6672	.0013**	32.40	6.3281	10.3565	.0023*
무	53	21.26	4.4961			27.09	4.6072			26.23	4.5341		

\*P<.05, \*\*P<.01

V. 논 의

부모역할의 질과 관련된 문헌들의 주된 관심은 자녀의 발달과 관련이 되어 있다. 부모역할의 질은 자녀 발달의 기초를 이루는 정신, 신체적건강에 결정적인 요소

이기 때문에 부모역할의 위험요인을 사정하는 것은 효과적인 지지와 조기의 중재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Mrazek(1996)은 밝힌바 있다. 총 63명의 영아어머니에게서 나타난 자녀돌보기 부담감은 10에서 50점사이의 점수에서 22.06의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교



할만한 보고가 아직 없어 그 정도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간과될수 없는 정도의 자녀돌보기 부담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구체적으로 '자녀돌보기로 인해 피곤하다'는 항목은 비교적 높은 점수(3.22)를 보여주어 영아어머니의 부담감 해소를 위한 지지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영아어머니의 자녀돌보기 부담감은 분만 형태별로 현저한 차이가 있어 제왕절개분만(20.15)에 비해 자연분만(23.96)인 경우 부담감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흥미 있는 결과를 보였는데, 어떤 요인 혹은 과정이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재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된 보고로서 Shea & Tronick (1984)는 제왕절개로 분만한 영아어머니의 경우 자녀돌보기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자연분만한 영아어머니보다 낮을수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수유형태별로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 분유수유아의 영아어머니에서 가장 부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결과는 모유수유 권장을 위한 자료로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아기에서 학령전기에 이르는 영유아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던 권(1994)의 연구에서는 자녀돌보기 부담감이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현저한 차이가 있었으나 영아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현재의 도움유무 역시 영아어머니의 자녀돌보기 부담감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은 현재 영아어머니가 자녀돌보기에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자녀돌보기 부담감을 감소시켜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의 도움이 자녀돌보기 부담감 해소에 효과적인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녀돌보기로 인한 이러한 부담감은 그 정도가 심해져 해소방법을 자녀에게 향해서 찾으려 할 때 영아학대로 발전할수 있기 때문에(Azar, 1990) 14항목으로 구성된 내용에 대한 영아어머니의 자녀돌보기 지지요구도는 14에서 42점사이의 점수에서 30.69로서 영아어머니의 자녀돌보기에 대한 지지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개 항목의 자녀돌보기 부모활동중 지지요구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는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사회적 형태의 돌보기활동과 '예방접종', '사고예방'의 예방적 차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돌보기활동으로서 영아어머니의 자녀돌보기 지지프로그램개발의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지요구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는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사회적 형태의 돌보기활동과 '예방접종', '사고예방'의 예방적 차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돌보기활동으로서 영아어머니의 자녀돌보기 지지프로그램개발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서 활용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지요구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는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사회적 형태의 돌보기활동과 '예방접종', '사고예방'의 예방적 차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돌보기활동으로서 영아어머니의 자녀돌보기 지지프로그램개발의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지요구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는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사회적 형태의 돌보기활동과 '예방접종', '사고예방'의 예방적 차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돌보기활동으로서 영아어머니의 자녀돌보기 지지프로그램개발의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아어머니의 자녀돌보기 지지요구도는 영아의 출생순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첫째나 둘째 이상보다도 둘째인 경우 가장 지지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첫째 자녀의 경우 돌보기에 몰두하여 지지요구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첫째 자녀 돌보기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둘째 자녀돌보기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나타난 반응이 아닌가 추측된다. 또한 자녀돌보기 지지요구도는 현재 자녀돌보기에 도움을 받고 있는 영아어머니의 경우 도움을 받지 않고 있는 영아어머니보다 훨씬 지지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결과는 자녀돌보기에 지지요구를 인식하는 영아어머니는 현재 도움을 받고 있어도 그 요구는 감소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받고 있는 도움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를 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접근으로 영아어머니의 지지요구를 충족시킬수 있는지에 대하여서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 Crockenberg(1988)에 의하면 부모의 자녀돌보기 행동에 영향을 줄수 있는 사회적 지지의 형태로서 부모에게 감정적입과 격려를 주는 정서적 지지, 자녀돌보기의 책임이나 역할을 감소시킬수 있는 도구적(Instrumental) 지지와 자녀돌보기에 관한 구체적인 충고나 정보와 관련된 정보차원의 지지가 있다고 하였다. 그는 전문가의 체계적인 지지가 부모의 자녀돌보기 능력을 향상시킬수 있음을 그의 모형개발과정에서 증명하였고 특히 고위험출생아 가족에게 유효하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지난 60년대부터 시작된 부모역할 교육의 사회적 효율성의 견지에 대한 논란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부모들이 그들의 역할에 대하여 조력을 원하고 있다는 것에는 전문가 모두가 명백히 동의하고 있다고 전제 한 Harman and Brim(1980)은 부모교육이란 부모역할 수행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대상부모에게 교육의 목적과 내용을 갖고 조직적이고도 계획된 노력을 하므로써 가

정에서 부모가 그들 자녀의 돌보기 관행을 향상시키는 노력이라고 정의한바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지지요구도와 같은 14항목에 대한 영아어머니의 자녀돌보기 교육 및 상담요구도는 총점평균 29.3으로 나타나 지지요구도에 비해 비교적 낮은 경향을 보여주었으나 지지요구와 함께 영아어머니의 자녀돌보기에 대한 교육적 요구도는 관심의 초점이 될만하다. 특히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같은 사회적 돌보기 활동과 '응급대처'의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그리고 '사고예방' 등의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교육적 요구가 비교적 높은 경향을 보여 부모역할교육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으로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 반면 전문가의 입장에서 부모의 자녀돌보기 역할교육에 대한 요구는 심각할 정도로 높게 보고 있다. 홍(1995)은 최근에 그의 논설문에서 질병의 예방에서 조기발견자로서 건강전문가들이 자녀의 건강에 일차적 책임을 진 부모들을 지지해 줄 책임에 대하여 자녀돌보기에 대한 체계적인 부모역할교육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뿐만아니라 Lykken(1997)은 현대의 사회적인 병폐는 무능하거나 사회병리적인 혹은 부모역할에 과중한 부담감이 있는 부모들로부터 내던져진 아동들에서 기인된다고 보고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로서 장기적으로 그들 아동의 출생에서부터 계속적인 지지와 교육으로 훈련시키므로써 부모자 격증 제도화를 고안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영아어머니의 자녀돌보기에 대한 교육 및 지지요구도는 지지요구에서와 같이 자녀의 출생순위가 첫째나 셋째에서보다 둘째 자녀의 영아어머니에게서 현저하게 높았고 현재 자녀돌보기에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에 도움을 받지 않고 있는 영아어머니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난 것은 지지요구와 같은 맥락으로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의(1997)의 연구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저체중출생아의 산모에게서도 교육요구도는 경산모에게서 높게 나타나 본연구결과와 일치된다. 뿐만아니라 산후 도움이 있는 경우에 더욱 교육요구도가 높게 나타난 것도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여 자녀돌보기 교육프로그램개발에 대상자 선정기준이나 혹은 목표설정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아어머니의 자녀돌보기 부담감과 지지요구도 그리고 교육 및 상담 요구도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자녀돌보기 부담감은 지지요구도나 교육 및 상담요구도와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아 자녀돌보기 부담감은 지지요구도나 교육 및 상담요구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보이며 또한 지지요구나 교육 및 상담요구가 영아어머니의 자녀돌보기에 대한 부담감의 주요요인은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자녀돌보기 부담감의 주요요인에 대한 탐색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상으로 하였던 총 63명의 영아어머니중 가정간호를 요구하는 영아어머니는 10명에 그쳤는데, 가정간호를 요구하지 않았던 영아어머니에 비하여 지지요구도나 교육 및 상담요구도가 유의하게 높아 비록 자녀돌보기 부모역할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가정간호에 대한 요구가 아직은 그리 높은 수준이라고 할수는 없겠지만 그 접근방안의 하나로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뿐만아니라 아직 가정간호의 개념에 대한 영아어머니의 인식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사실이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발견되었던 바 이에 대한 집중적인 시범연구가 영아어머니의 자녀돌보기 능력향상을 위한 하나의 접근방안으로서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Olds(1997)의 연구는 산전에서부터 생후 2년까지 지속된 가정간호프로그램이 영아의 건강과 발달과 관련된 영아어머니의 자녀돌보기 능력향상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와 건강증진 및 인간 봉사체계 프로그램으로서 가정간호의 접근방안을 강력히 추천하였다.

## VI. 결론 및 제언

### 1. 결 론

본 연구는 영아 어머니의 자녀돌보기에 대한 부담감, 지지 그리고 교육 및 상담요구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1996년 11월 1일부터 30일사이에 서울시내 일개 대학병원과 일개 보건소 영유아실을 방문한 영아어머니 63명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개발한 질문지를 통해 자료수집하였고,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의 통계분석을 시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1) 영아어머니의 자녀돌보기 부담감은 10에서 50사이의 점수에서 22.06점의 수준을 나타냈다. 그리고 제왕절개분만보다 자연분만한 영아어머니에게서, 영아에게 분유영양을 하는 경우가 모유나 혼합영양을 하는 경우보다 부담감이 유의하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2) 영아어머니의 자녀돌보기 지지요구도는 14에서 42사이의 점수에서 30.69점이었다. 영아어머니의 자녀돌보기 지지요구도는 영아의 출생순위가 둘째인 경우, 첫째나 셋째이상의 경우보다 더 높았으며 현재 자녀돌보기의 도움이 있는 경우가 도움이 없는 경우보다

- 더 높게 나타났다. 지지요구도가 비교적 높은 것은 “부모-자녀 상호작용”, “예방접종”, “사고예방”이었다.
- 3) 영아어머니의 자녀돌보기에 대한 교육 및 상담요구도는 14에서 42사이의 점수에서 29.3이었다. 영아어머니의 자녀돌보기에 대한 교육 및 상담요구도는 지지요구와 마찬가지로 영아의 출생순위가 둘째인 경우, 첫째나 셋째 이상의 경우보다 더 높았으며 현재 자녀돌보기의 도움이 있는 경우가 도움이 없는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교육 및 상담 요구도가 비교적 높은 항목으로는 “부모-자녀 상호작용”, “응급대처”, “사고예방”이었다.
  - 4) 영아어머니의 자녀돌보기 부담감은 지지요구도나 교육 및 상담요구도와 상관이 없었으며, 지지요구도와 교육 및 상담요구도와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 5) 가정간호를 원하는 영아어머니는 가정간호를 원하지 않는 영아어머니보다 자녀돌보기에 대한 지지나 교육 및 상담요구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부모역할의 위험요인으로서 영아어머니의 자녀돌보기 부담감에 대한 사정과 부담감 감소를 위한 조기중재는 자녀의 건강과 발달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볼 때 영아어머니에게 간과될 수 없는 수준의 자녀돌보기 부담감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자녀돌보기에 지지요구와 교육 및 상담요구도 역시 관심의 초점이 되나 자녀돌보기 부담감의 주요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자녀돌보기에 지지와 교육 및 상담요구내용으로서 비교적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사회적 형태의 돌보기활동과 ‘예방접종’, ‘사고예방’의 예방적 차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돌보기활동, ‘응급대처’의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그리고 영아어머니의 자녀돌보기 지지 및 교육프로그램개발의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자녀돌보기 부모역할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가정간호는 그 접근방안의 하나로써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2. 제 언

- 1) 본 연구결과는 영아어머니의 자녀돌보기 능력향상을 위한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개발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2) 영아어머니의 자녀돌보기 부담감의 요인에 대한 탐

색적 연구가 필요하다.

- 3) 영아어머니의 자녀돌보기 능력향상을 위해 가정간호의 적용과 그 효율성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 4) 영아어머니의 자녀돌보기 능력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접근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권미경(1995). 일개 지방도시 보건소를 내원한 영유아 어머니의 건강관리지도 요구조사, *최신의학*, 38(7) : 33-41.
- 명재일, 정영철(1991). 의료전달체계 운영성과의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정선, 황나미, 정기혜(1992). 지역모자보건. 의료. 복지서비스 협조체계와 공공부문 모자보건서비스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인화, 황나미(1993). 모자보건의 정책과제와 발전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인화, 황나미, 정기원, 오미영(1994). 어린이의 건강과 복지수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현애, 송건용(1994). 어린이의 의료이용과 엄마의 의료이용간의 관계, *모자간호학회지*, 4(1) : 24-32.
- 송건용, 박현애, 이순영, 김태정(1993). 의료이용과 건강행위에 관한 종합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송건용, 김영임, 박현애(1991). 노인과 영유아의 의료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한국보건사회논집*, 11(1) : 1-11.
- 조결자, 정연, 이군자(1997). 저출생체중아 어머니와 정상 신생아 어머니의 간호교육요구도 조사, *아동간호학회지*, 3(1) : 5-18.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3). 이상적인 복지사회의 조건, 21세기위원회 보고서, 362-381.
- 한경자, 박성애, 하양숙, 윤순녕, 송미순(1994). 일개 군 지역의 가정간호요구조사, *간호학회지*, 24(3) : 484-498.
- 한경자, 박성애, 하양숙, 윤순녕, 송미순(1995). 공공보건조직에서의 방문간호사업모형개발 : 보건진료소 방문간호사업, *간호학회지*, 25(3) : 472-484.
- 홍강의(1995). 자녀양육과 부모역할의 위기, 소아진료부개원 10주년 기념심포지움, 서울대학교병원.
- Azar, S., and Siegel, B. R.(1990). Behavioral treatment of child abuse : A developmental Perspective. *Behavior Modification*, 14, 279-300.

- Bigner, J. J.(1985). Parent-Child Relations, MacMillan Publishing Co., Inc.
- Brazelton, T. B.(1995). Working with Families, Ped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42(1) : 1-9.
- Browich, R. M.(1981). Working with Parents and Infants, An Interactional Approach, University Park Press, Baltimore.
- Crockenberg, S(1988). Social Support and Parenting, in Theory and Research in Behavioral Pediatrics Volume 4 edited by Fitzgerald, H. E., Lester, B. M., Yogman, M. W., Plenum Press. New York and London.
- Dahlquist, L. M., Power, T. G., Cox, C. N., Fernbach, D. J.(1994). Parenting and Child Distress During Cancer Procedures : A Multidimensional Assessment, Children's Health Care, 23(3) : 149-166.
- Davis W. H, Noll R. B, DeStefano L, Bukowski W. M, Kulkarni R(1991). Childhood cancer and Parental child-rearing practices. J Pediatr Psychol 16 : 295-306.
- Galinsky, E.(1981). Between Generations : The six stages of parenthood, New York, Berkley.
- Gordon, T.(1972).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 The "No-Lose" Program for Raising Responsible Children, Peter H. INC./Publisher, New York pp1-28.
- Kitzmann, H., Olds, D., Echenrode, J., Cole, R., Holmberg, S.(1997). Long-Term Effects of Early Home Visitation on Caregiving, Vision and Voices : Passages into 21st Century, 9th Annual Scientific Sessions of the Eastern Nursing Research Society.
- Koepke, J. E.(1994). Health Care Settings as Resources for Parenting Information, Pediatric Nursing, 20(6) : 560-563.
- Lykken, D. T.(1997) Incompetent Parenting : Its Causes and Cures,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27(3) : 129-137.
- Mrazek DA, Klinnert MD, Mrazek P, Macey T (1991). Early asthma onset : consideration of parenting issues.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30 : 277-282.
- Olds, D., Kitzman, H., Cole, R., Robinson, J.(1997). Theoretical Foundations of A Program of Home Visitation for Pregnant Women and Parents of Young Childre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1) : 8-25.
- Porter, C. P.(1990). Clinical and Research Issues related to Teen Mothers' Child Rearing Practices, Issues in Comprehensive Pediatric Nursing, 13 : 41-58.
- Rodrigue, J. R., Geffken, G. R., Clark, J. E., Hunt, F., Fishel, P.(1994).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Among Caregivers of Children With Diabetes, Children's Health Care, 23(3) : 181-191.
- Rossi, A. S.(1977). A biosocial perspective on parenting, Daedalus, p106.
- Shea, E. and Tronick, E. Z.(1984). The Maternal Self-Report Inventory, A Research and Clinical Instrument for Assessing Maternal Self-Esteem in Theory and Research in Behavioral Pediatrics, Volume 4 edited by Fitzgerald, H. E., Lester, B. M., Yogman, M. W., Plenum Press. New York and London.
- Solomon, W. J.(1993). Transmission of Cultural Goals : Social Network influences on infant Socialization in Parental Development edited by Demick, J., Bursik, K., Dibiase, Rosemari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Hillsdale New Jersey, Hove and London.
- Wapner, S(1993). Parental Development : A Holistic, Developmental Systems-Oriented Perspective in Parental Development edited by Demick, J., Bursik, K., Dibiase, Rosemari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Hillsdale New Jersey, Hove and London.
- Wilder, H. T.(1982). Mother/Nature, A Skeptical Look at the Unique Naturalness of Maternal Parenting, in Child Nurturance, Volume 1 Philosophy, Children, and the Family edited by Cafagna, A. C., Peterson, R. T., Staudenbaur, C. A. Michigan State University, East Lansing.
- Young, R. K.(1986). Primiparas' Attitudes Toward Mothering, Issues in Comprehensive Pediatric Nursing, 9 : 259-272.

– Abstract –

Key concept : maternal burden of caretaking, .  
support, education

### **The study on the maternal burden of caretaking, the support and educational need for the caretaking activities of the infants' mother**

*Han, Kyung Ja\**

It is important to assess the risk factors of parenting and provide early intervention for promotion of the maternal caretaking ability.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dentify the maternal burden of caretaking, the supporting and the educational need for the caretaking activities of the mother of infant. Sixty three mothers of infants who visited the wellbaby clinic of S university hospital and one health center during the period of November 1st, to 30th in 1996 comprised the subjects of this study.

Data were gathered through the instruments that were developed by researcher.

Statistical analysis of this study was used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 1) The mean score of the maternal burden of caretaking was 22.06. The maternal burden of caretaking was significantly high in the mothers who had vaginal delivery compare with the mothers who had caeserean section and in the mothers who gave artificial feeding compare with the group of breast or mixed feeding.
- 2) The mean score of the support need for the caretaking activities was 30.69. The support need for the caretaking activities was significantly high in the mothers who had the second child, compare with the mothers who had first or third child. And the support need for the caretaking

activities was significantly high in the mothers who had caretaking help compare with the mothers who had no caretaking help. The specific subjects of 'mother-infant interaction', 'immunization' and 'prevention of accident' on the support need for the caretaking activities were relatively high.

- 3) The mean score of the educational need of caretaking activities was 29.3. The educational need of caretaking activities was significantly high in the mother who had the second child compare with the mothers who had first or third child. And the educational need of caretaking activities was significantly high in the mothers who had caretaking help compare with the mothers who had no caretaking help. The specific subjects of 'mother-infant interaction', 'emergency care' and 'prevention of accident' on educational need of caretaking were relatively high.
- 4) The maternal burden of caretaking was not correlated with the support need or the educational need of caretaking activities. But the support need of caretaking activities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educational need of caretaking activities.
- 5) The support and educational need of caretaking activities were significantly high in the mothers who wanted home care for caretaking their infants.

Through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re is considerable maternal burden of caretaking as well as the support and educational need on the caretaking activities in the mothers whose child is young. Therefore developing the systematic and effective program is needed to meet the mother's ne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ful resources to develop the program. On the other hand, it can be recommended that home health care will be one of the approach to support the mothers caretaking activities.

---

\*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